

현안과 과제

남북관계 경색 해소와 금강산관광

Executive Summary

□ 남북관계 경색 해소와 금강산관광

I. 금강산관광 사업의 현황과 성과

(현황) 금강산관광은 1998년 6월, 현대가 북측과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 합의한 후 11월 18일 유람선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3년 9월의 육로관광과 2006년 6월의 내금강 관광 등으로 관광 코스가 다양해지면서 2006년에는 관광객이 35만명에 달했다. 이로써 2008년 7월 관광 중단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6만명에 달했다.

(의미) 금강산관광은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 개막은 물론, 정치·사회문화적 등 경제외적인 분야에서도 '통일의 실험장' 역할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남북경협을 종전의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강원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에도 기여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관광과 경협을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당국 간 대화 단절 및 극단적인 대립을 방지하고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을 조성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로 남북 상호간의 이질감 완화와 남북문화공동체 형성의 토대 등 '통일 체험장' 역할에 기여했다.

(중단 장기화 폐해) 금강산관광 중단의 장기화로 대북사업권과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도 매출액만도 약 9,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지역경제 위축과 남북경협업체들의 도산과 경영악화, 실업, 대북관광 주도권 약화 등을 초래하였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남북간 긴장고조와 남남 갈등 심화,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중단 장기화 등이 폐해로 지적된다.

II. 국민 여론 조사 내용

(설문 개요) 금강산관광 중단 4년을 맞아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재개문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6월 28~7월 9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 만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공감) 남북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화해·평화의 상징이므로 재개 시급

일반국민 10명중 7명(67.8%)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금강산관광의 의미를 '남북 상호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창구'(39.1%), 또는 남북 화해 및 평화의 상징'(36.1%)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순한 관광 상품'이라는 의견은 24.8%에 불과했다. 금강산관광 중단 1년째인 2009년 조사와 비교해도 남북 상호 이해 창구 및 화해·평화의 상징이란 부문에 응답률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강산 방문 희망) 조만간 재개되긴 어렵지만, 재개 시 방문 희망률 높음

금강산 방문 희망은 방문 희망자(46.6%)가 방문하지 않겠다(32.8%)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특히 과거 금강산을 방문했던 유경험자(50.7%)들의 재방문 희망 응답률이 무경험자(46.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금강산관광의 긍정적 의미를 방증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상당수(78.3%)는 현 정부 임기 내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응답했다. 이는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재개 기대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관광 우선 재개 필요) 일반국민 10명중 6명(58.8%)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우선 개성관광이라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이는 금강산관광에 비해 개성관광이 관광객 수가 적고, 개성공단도 운영 중에 있어 재개에 부담이 적다는 현실적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연한 대북정책 전환에 한 목소리)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감과 2013년 남북관계에 부정적 전망을 표하면서,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44.5%)이란 평가가 만족(13.8%)보다 배나 많았다. 또한 2013년 남북관계 전망은 ‘현재와 비슷’(59.2%)하거나 ‘악화’(23.2%)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높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10명중 7~8명(75.4%)이 ‘유연성’(65.9%)과 ‘전면 수정’(9.9%)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전문가(100.0%)가 일반인(75.4%)보다 더 높은 비율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을 요구하였다.

Ⅲ. 시사점과 정책 제언

(시사점) 금강산관광은 기업 차원이 아닌 한반도 평화 구축의 매개체요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을 넘어, 남북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 기여라는 경제외적인 긍정적 의미가 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첫째,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도 일정한 남북관계 회복 조치가 요구된다. 예컨대 현 정부는 8.15명축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강산관광은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조속한 재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금강산관광 추진을 위해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 셋째, 단시간 내 금강산관광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개성관광을 우선 재개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금강산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관광객 수도 적고 개성공단도 현재 운영 중에 있어 재개 부담이 적은 개성관광을 우선 재개할 필요가 있다.

I. 금강산관광 사업의 현황과 성과

○ (현황) 금강산관광은 1998년 6월, 현대가 북측과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 합의한 후, 11월 18일 유람선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시작

- 2003년 9월의 육로 관광과 2006년 6월의 내금강 관광 등으로 관광코스가 다양해지면서, 2008년 중단 전까지의 누적관광객 수는 총 196만 명에 달함
- 이로써 2008년에는 연간 40만 명의 남북 관광시대를 목전에 둠
-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되어, 2012년 현재 중단 4년째를 맞고 있음

<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 >

(단위 : 만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8.1~7
연도별	1	15	21	6	9	7	27	30	24	35	19
누적	1	16	37	43	52	59	86	117	147	176	196

○ (의미) 금강산관광은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 개막은 물론, 정치·사회문화적 등 경제외적인 분야에서 '통일의 실험장' 역할을 했다는 데 큰 의의

- 경제적 :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의 개막과 제도화 진전에 기여
 - 금강산 사업은 남북경협을 종전의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강원도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
 - 또한 경협 추진 과정에서 철도·도로·통신 등의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 특구법과 4대경협합의서 등의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기여
- 정치·군사적 :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 마련
 - 관광과 경협을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은 당국간 대화 단절과 극단적인 대립 관계로의 확대를 예방하고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

- 또한 군사 분계선의 북상 및 관통 의미가 있으며, 대결과 갈등의 비무장 지대(DMZ)를 화해·협력의 통일 꿈을 실현하는 공간(DMZ : Dream Making Zone)으로 거듭나게 함

- **사회·문화적 : 남북문화공동체 형성 및 통일의 체험장 제공**

-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대학생들의 평화캠프 행사 등은 남북 상호간의 이질감 완화와 남북문화공동체 형성의 토대 제공

○ **(금강산관광 중단외 장기화 피해) 총 9,200억원의 경제적 손실,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사회·문화적 피해, 한반도 긴장고조로 정치·군사적 위기 증대**

- **경제적** : 현대의 독점적 사업권 5,500억원과 현대와 협력업체 등 시설투자액 4,200억원을 제외하고도 매출 손실액만 약 9,200억원에 달함

- 매출액 손실은 현대아산 5,600억원 + 협력업체 2,200억원 + 고성군 지역 경제 1,400억원 등으로 평가

-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초래)** 강원 속초, 고성 등 해당 지역 경기 침체 가속화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속출되는 한편, 금강산 사업 관련 경협업체들의 도산과 심각한 경영난 초래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특구 조치로 인한 중국관광객 확대)** 관광중단으로 인해 현재 중국관광객 위주로 운영 중에 있고, 이는 향후 우리의 대북 관광 주도권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정치·군사적 : 남북 교류의 단절로 긴장고조 심화**

- **(정치·군사적 긴장 고조)** 남북 화해·협력 및 상생의 경협 모델 상징인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외 장기화로 남북 당국간 대화도 크게 위축되어 한반도내 정치·군사적 긴장 고조

- **(과도한 신뢰 복원 비용)** 훼손된 당국간 신뢰의 복원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될 우려

- (남남 갈등 심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보수-진보 진영 간의 남남 갈등이 더욱 심화
- 사회·문화적 : 남북간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의 훼손 우려
 - (이산가족 상봉 중단의 장기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었으나, 준공식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 중단 장기화가 우려
 - (남북간 민족공동체 의식 훼손) 남북간 대화 중단의 장기화와 대립 의식 심화로 각종 국제 체육 문화 행사에서의 공동 행사가 무산 사례 속출
-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 여론) 중단 4년을 맞아 금강산관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

II. 국민 여론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목적) 금강산관광 중단 4년을 맞아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재개문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함

· 조사 시기 : 2012. 6. 28~29, 7. 2~3 (총 4일간)
· 조사 방법 : 전화면접
· 조사 대상 : 서울 및 6대 광역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조사 내용

-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과 평가) 금강산관광은 남북 상호이해의 창구 면서 화해·평화의 상징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상당수의 국민들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

- 전체 1,012명의 국민 중 67.8%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상당수 국민들이 관광 재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연령대로 보면 40~50대가 20~30대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전체비율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1. 필요 하다	67.8%	64.3%	66.5%	70.2%	70.2%
2. 필요 없다	32.2%	66.5%	33.5%	29.8%	29.8%

- 정치성향 별로는 보수 61.8%, 중도 66.1%, 진보 78.1%로, 진보가 보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금강산관광 의미)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강산관광을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닌 '남북 상호이해의 창구'이며, '남북 화해·평화의 상징'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일반 국민의 10명중 7~8명(75.2%)은 금강산관광을 '남북간 상호 이해의 창구(39.1%)'와 '남북한 화해·평화의 상징(36.1%)'이라고 인식
 -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남북 상호간의 이해 창구'를, 40~50대는 '남북한 화해·평화의 상징'이라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금강산관광 중단 1년째인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단순 관광 상품'이란 응답률이 줄어들고, '남북 상호 이해 창구'와 '화해·평화 상징'이라는 긍정적 응답률이 증가함
 -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금강산관광의 의미	2009.7	2012.7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1. 단순한 관광 상품이었다	30.8%	24.8%	27.0%	22.4%	24.1%	25.5%
2. 남북 상호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창구	34.9%	39.1%	43.4%	44.1%	33.3%	35.6%
3.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	34.3%	36.1%	29.7%	33.5%	42.5%	38.9%

○ (재방문 의향과 재개 가능성) 재개될 경우 방문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현 정부 임기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아, 재개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 만연돼 있는 듯함

- (방문 의향) '만약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금강산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46.6%)'는 의견이 다소 많음

· 과거 금강산 방문 경험 유무 별로는 방문 유경험자의 재방문 희망 응답률(50.7%)이 무경험자(46.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20~30대보다 방문의향 응답률이 높음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의향	전체비율	연령				금강산 경험	
		20대	30대	40대	50대	유	무
1. 매우 많이 있다	16.6%	9.0%	9.8%	25.2%	22.6%	26.1%	15.9%
2. 어느 정도 있다	30.0%	28.9%	30.7%	29.8%	30.5%	24.6%	30.4%
3. 반반이다	20.6%	23.0%	26.0%	17.2%	15.9%	10.1%	21.4%
4. 별로 없다	17.0%	21.1%	18.5%	13.4%	15.1%	23.2%	16.6%
5. 전혀 없다	15.8%	18.0%	15.0%	14.5%	15.9%	15.9%	15.7%

- (현 정부 임기 내 재개 가능성) 상당수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응답자의 78.3%가 현 정부 임기 내에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답함으로써, 재개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 만연돼 있는 듯함

·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20대 74.2% → 30대 78.0% → 40대 79.0% → 50대 이상 82.4%)

현 정부 임기 내 재개 가능성	전체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1. 매우 높은 편이다	0.6%	0.4%	0.4%	0.4%	1.3%
2. 높은 편이다	3.2%	2.3%	2.4%	5.3%	2.5%
3. 반반이다	17.9%	23.0%	19.3%	15.3%	13.8%
4. 낮은 편이다	34.2%	34.4%	31.5%	29.0%	42.7%
5. 매우 낮은 편이다	44.1%	39.8%	46.5%	50.0%	39.7%

- (개성관광 우선 재개 필요성) 응답자의 과반수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우선 개성관광이라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 일반 국민들의 10명중 약 6명(58.8%)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우선 개성관광이라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는 개성관광이 금강산관광에 비해 관광객 수도 적고, 현재 개성공단이 운영 중에 있어 재개에 부담이 적다는 현실적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음 (20대 53.9% → 30대 55.5% → 40대 59.5% → 50대 이상 66.5%)
 - '우선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집단은 ▲지역별로는 제주(90.9%), 광주·전라(69.2%) ▲정치성향별로는 진보(69.8%) 성향임

개선관광 우선 재개 필요성	전체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1. 필요 하다	58.8%	53.9%	55.5%	59.5%	66.5%
2. 필요 없다	41.2%	46.1%	44.5%	40.5%	33.5%

○ (대북정책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감 표시와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2013년 남북관계는 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응답**

- (현 정부의 대북정책) '불만족'이란 평가가 '만족'이란 응답률보다 3배 이상 높음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족'(44.5%), '보통'(41.8%)이라는 의견이 '만족'(13.8%)한다는 응답률보다 월등히 높았음
 - '불만족'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7.0%), 강원(48.4%), 대전·충청(46.6%) 순으로, ▲연령대별로는 30대(51.7%)가, ▲정치성향별로는 진보(62.9%)가 보수(31.9%)보다 높음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체비율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1. 매우 만족한다	2.8%	2.0%	1.2%	1.9%	6.3%
2. 만족하는 편이다	11.0%	11.3%	5.5%	13.0%	14.2%
3. 보통이다	41.8%	41.8%	41.6%	38.9%	45.2%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7.4%	30.9%	32.5%	23.3%	22.6%
5. 매우 불만족하다	17.1%	14.1%	19.2%	22.9%	11.7%

-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응답자 10명중 7~8명은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 불만이 그대로 드러남
 -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 필요’(65.9%)와 ‘대북 포용 정책으로 전면 수정’(9.9%) 등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의 목소리가 ‘기존의 대북 강경정책 유지’(24.2%)보다 3배나 많았음
 -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성향(85.8%)은 물론 보수성향의 상당수인 66.1%마저 유연성과 전면 수정에 높은 비율로 응답
 - 특히, 대북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들이 더 높은 비율로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음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일반인		전문가
	2009.7	2012.7	2012.2
1. 대북포용정책으로 전면 수정	31.3%	9.9%	58.3%
2. 좀 더 유연성이 필요	53.0%	65.9%	41.7%
3. 기존의 대북 강경정책 유지	15.7%	24.2%	0.0%

- (2013년 남북 관계 전망) 부정적 전망이 다소 우세
 - 응답자들은 ‘현재와 비슷’(59.2%) 또는 ‘현재보다 악화’(23.2%)될 것이라고 답해, 10명 중 8명 이상은 남북관계가 2013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연령별로 보면 ‘현재보다 악화’ 응답률이 20대(33.2%)→ 30대(21.2%)→ 40대(19.9%)→ 50대 이상(18.4%)로 젊은 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비관적 전망

2013년 남북관계 전망	전체비율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1.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다	15.9%	6.3%	14.5%	22.2%	20.9%
2.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59.2%	60.5%	63.5%	55.6%	57.3%
3.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다	23.2%	33.2%	21.2%	19.9%	18.4%
4. 모름	1.6%	0.0%	0.8%	2.3%	3.3%

Ⅲ.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시사점

○ 금강산관광은 기업 차원이 아닌 한반도 평화 구축의 메카체라는 인식 필요

-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을 넘어, 남북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 기여라는 경제외적 분야에서도 긍정적 의미가 있음을 재인식할 필요 있음
 - 상당수의 국민들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남북관계 긴장완화에 있어 금강산관광은 순기능이 있음을 시사
 - 다시 말해 금강산관광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한 상호 이해 등의 '통일 체험장' 역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정책 제언

○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이 요구됨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
 -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정책의 '유연성'을 갖춰야하고, 이를 위해 일정한 남북관계 회복조치 노력이 요구됨
 - 남북관계 회복조치 노력을 위해 8.15경축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민들의 대다수는 2013년 남북 관계 전망을 '현재와 비슷' 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좀 더 유연성이 강조되는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있음

○ 조속한 시한 내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 필요

- 금강산관광은 남북경협활성화와 남북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조속한 재개가 요구됨
- 추석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한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속적인 금강산관광 추진을 위한 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필요가 있음

○ 단시간 내 금강산관광 재개가 어렵다면, '先' 개성관광 재개 필요

- 상대적으로 재개가 용이한 개성관광을 우선 재개할 필요가 있음
- 개성관광은 금강산관광에 비해 관광객 수도 적고 개성공단도 현재 운영중에 있어 재개 부담이 비교적 적음
- 한편 국민들도 금강산관광에 앞서 재개 부담이 적은 개성관광이라도 우선 재개하자는 요구가 많음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2-2072-6221)

이용화 선임연구위원(yhlee@hri.co.kr, 02-2072-6222)

< 부록 > 금강산관광 주요 일지

일자	추진 내용
'89. 1. 24~31	故정주영 명예회장 방북, 김일성 주석 면담, 금강산개발 의정서 체결
'98. 6. 16	故정주영 명예회장 소떼 방북, 금강산 사업 등 경험 합의
'98. 8~9	금강산관광사업의 협력 사업자 지정(8. 6) 및 사업 승인(9. 7)
'98. 10. 27	故정주영 명예회장 소떼 재방북
'98. 10. 29	금강산관광개발 사업 합의서 체결(김정일 국방위원장 첫 면담)
'98. 11. 18	금강산관광선 금강호 첫 출항 - 이산가족, 실향민, 기자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첫 출항 * '98.11.20 봉래호, '99.5.14 풍악호, '00.9.9 설봉호 투입
'99. 6. 21	민영미씨(6.19 풍악호 승선) 억류사건 발생(관광중단)
'99. 7. 30	관광세칙 및 신변안전관련 합의서 체결
'00. 8. 22	현대-아태간 합의서 체결(관광 확대, 공단 건설, SOC 건설 등)
'01. 10. 3~5	제1차 금강산 당국회담 개최
'02. 1. 23	금강산관광사업 지원방침 발표 - 관광공사의 기금 대출조건 완화,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에게 금강산관광경비 보조
'02. 9. 10~12	제2차 금강산 당국회담 개최
'02. 11. 22	현대-아태,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한 육로관광 실시 합의 - '02. 12.5부터 시범육로관광 실시 - 관광정례화 및 철도, 도로 연결 후 확대
'02. 11. 25	북측,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 - 자유로운 투자·관광활동 보장, 관리기관 구성, 특구 개발·운영
'03. 2. 14~16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 및 시범육로관광 - 시범관광 참가(총 466명 1박2일, 2박3일 병행) * '03.2.23~3.1 일반인 대상 육로관광 3회 실시(총 1,005명 관광)
'03. 10. 9	매일 육로관광 실시
'04. 1. 11	해로관광 중단(쾌속정 사업은 추후 예정)
'04. 3. 31~4. 4	금강산 1박2일 시범관광 2회 실시
'04. 5. 26~29	관리기관 설립·운영, 세관, 출입·체류·거주 등 3개 규정 발표(5. 26) 노동, 외화관리, 광고 등 3개 규정 발표(5. 29)
'04. 6. 15	금강산 당일관광 시범 실시, 268명 참가(사업자 초청)
'04. 6~7	관광 일정 확대 : 1박 2일 관광 시작(6. 19), 당일관광 시작(7. 3)
'04. 10. 11	부동산 규정 발표
'04. 10. 13	금강산 골프장(18홀, 9홀) 건축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04. 12. 1	가족호텔(총97실) 건축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05. 3. 12	김정숙 휴양소(총171실) 개보수, 운영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05. 6. 7	금강산관광객 100만 명 돌파
'05. 9. 1	옥류관, 금강산가족호텔, 제2온정각 개관
'05. 11. 25	제2차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49억 7천만원)지원 결정 - 교사, 학생 16,429명('05.12.22~'06.3.8) 실시
'05. 12. 30	에머슨퍼시픽(주) 협력사업 승인 : 골프, 스파 리조트 건설, 운영

'06. 3. 31	금강산골프장 분리, 해금강호텔 개보수, 직원숙소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 따른 금강산 협력사업 변경 승인
'06. 5. 8	농협중앙회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금융업) 승인
'06. 5. 27	내금강코스 답사, 현대-北 아태·명승지종합개발회사간 공동 실시
'07. 5. 28	금강산 면세점 개장
'07. 6. 1	내금강 관광 실시
'07. 6. 25	(주)한국엘피가스에게 남북협력사업자 및 남북협력사업 동시승인
'07. 10. 13	금강산 신계사 낙성식
'07. 11. 30	(주) 한국엘피가스 가스충전소 준공식
'07. 12. 8	현대아산-북측 관계자 비로봉 답사
'07. 12. 12~15	정부합동 현지 안전점검 실시
'08. 1. 13	제3차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08. 3. 17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08. 7. 11	관광객 박왕자(53)씨 북한군 총격에 사망, 금강산관광 잠정적 중단(7. 12)
'08. 8. 3	北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남측인원 추방, 군사분계선 통제, 적대행위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
'08. 12. 1	北, 육로통행 제한 차단 등 '12.1 조치 실행 금강산 지구 상주인원 100명 제한
'09. 11. 25	北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 남측에 전가)
'10. 1. 14	北 아태평화위 명의 통지문(금강산지구에서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제의)
'10. 1. 25	통일부장관 명의 통지문(개성에서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제의)
'10. 2. 2	北 아태평화위 명의 통지문(개성에서 실무회담 개최하지는 남측 제의 수용)
'10. 2. 8	금강산 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개최(성과 없음)
'10. 3. 4	北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금강산관광 재개 방해시 관련 계약 합의 파기 선언)
'10. 3. 18	北 아태위 명의 통지문(3.25부터 금강산지구내 남측 부동산 조사 실시 통보)
'10. 4. 8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 (금강산지구내 부동산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등 선포)
'10. 4. 13	北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시설 동결, 면회소 관리인원 추방
'10. 4. 21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현대아산에 국방위 정책국이 4.22 금강산 부동산 조사결과 검토를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구두 통지
'10. 4. 23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 자산몰수 및 나머지 부동산 전체 동결 등 통보, 무서운 차후조치 뒤따를 것이라고 선언
'11. 4. 8	北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 - 현대와 맺은 금강산관광 합의서에서 현대 측에 준 독점권 조항의 효력 취소 - 북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北이 맡아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 한다는 입장을 통보
'11. 4. 16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상보 : 금강산관광 문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 북한 측 조치는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 없으며, 공화국법과 국제법·국제관례에 부합 주장
'11. 6. 2	北 중통,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발표
'11. 6. 16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 :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광특구내의 모든 재산을 정리,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모든 남측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통고
'11. 8. 10	현대아산 장경작 사장 등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